주기도와 십자가(VII) - 죄의 용서
(마6:9~12)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주기도와 십자가 일곱 번째 '죄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끝으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이 말씀 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였다 그러면 후반부는 구체적인 이 세상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해가 주님께서 6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문맥을 살펴볼 때에 납득이 안 가는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도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따로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맞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나가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아버지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제 마음이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관계해야 될 많은 물질들 여러 물질들 그 모든 것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제가 고백하오니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용도를 정하시고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자꾸 일용할 양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마음이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욕망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제 마음이 죽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돈에 대한 저의 애착과 사랑이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구절 이하의 구절들은 앞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을 의식한 기도의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것을 꼭 꼬집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꼭 염두에 둬야 될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 관계에서의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잘못한 자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아닙니다. 나한테 죄를 진 자를 나한테 잘못한 자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기도를 진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하기가 제일 꺼려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바뀌겠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구절이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은 더 꺼려질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옷 한 벌 사고, 차 한 대 사고, 백 하나 사고, 구두사고, 자식을 위해 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 중에 지출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되어져야 될 일들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이 정말 큰일 날 구절이지요.

하여간 그 다음 구절, 내 마음에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러 다니고 또 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괜히 비방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나를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에 나에게 죄를 졌을 때에 나에게 뭐 인륜을 어겼다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흔 번이라도 일곱 번씩 용서해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러면 490번 아닙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일곱 번 용서하면 무지하게 많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맥시멈으로 정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아마 말씀을 드린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칠십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90명이 한 번씩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혹시 용서해볼 수 있는 엄두를 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490번을 나한테 잘못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흔 번씩 일곱 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용서라는 행위를 매번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해서 490번씩까지라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적 사람 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용서의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그때 마다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용서적 사람이 되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적 사람이 됩니까?

지금 그 구절 뒤에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합니다.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느 한 지역의 총 일 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에요. 백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푼돈이에요.

그래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뒤에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못해줘서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용서적 사람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 용서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적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용서적 사람이 된다는 것은 「피해의식」이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피해가 될 만한 일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나한테 손해가 끼쳐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순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피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인식을 합니다. 내 돈을 부당하게 떼어먹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식은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은 안 갖는다 이거예요.

스테반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피해의식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피해의식이 있으면 내가 지금 피해본다고 하는 마음에 실감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100수 1,000수를 내다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은 멈춰지고 방해되고 끝나고 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전동버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식후경의 관광으로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없어져버리고 말아요. 용서가 안 되면, 피해의식이 쌓여지면…

그러면 여러분, 이 피해의식을 넘어간 예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당신 자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현장으로 이끌어 갈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를 용납하고 제자의 서클 안에 그대로 두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삼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냥 당신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손해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사건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도대체 피해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피해망상」입니다. 신앙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다시 주님의 아들 되심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있어서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delusion)일 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피해의식이 망상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가십니다. 주님의 삶을 통치하시듯이 통치해나가십니다. 이때에 그 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더군다나 그 분은 내가 손해 볼 일 내 인생이 내 생애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내 영혼의 손해를 막으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 혹시 이 땅에 있는 부모님 같으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내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마는 전지전능한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이기고 내게 손해가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손해를 느끼고 피해를 느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함으로써 내가 나의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망상이거나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외아들까지 주신 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사랑을 이기고 그 사랑을 무효화시키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피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망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인 이유는 피해의식은 망상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몸으로 태어난 내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그 어떤 일인가가 내 생애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어서 내 마음이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신앙인 거예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나를 해고했다. 사장님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장님이 해고할 때에 나의 아버지가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사장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보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해고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해고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는데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는 사장님의 능력이 사장님의 인사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힘이 세고 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구요.

이 세상의 누군가가 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힘보다도 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은 망상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님에 대한 배반이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라 인도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 피조물 중에 어느 피조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보다 이 세상 피조물적인 권세나 능력을 더 강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 중에 이런 괘씸한 불신앙이 없다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유 없이 박해를 합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신앙이에요. 시어머니가 누군데 시어머니의 박해 정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이 피조의 세계 안에서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직장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이 우리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직장이 당장 없으면 아버지 집에서 쉬면 돼요. 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직장 그만 두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시고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일이 나한테 피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사장님 말이야, 부장님이 나를 고자질 한 거 다 부장님의 편견 때문인데 그 말을 듣고 나를 해고해? 부장과 사장 가다가 발병 나서 사고라도 생겨버려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중이지 내게 손해가 당한 게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가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파트너가 돈을 떼먹기로 결정할 때부터 도망가는 현장까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고 천국이 임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더 좋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이 악역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저렇게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데 아버지, 나야 피해볼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어떻게 피해를 봅니까? 저 사람이 돈 떼어 먹기로 결정할 때부터 도망갈 때까지 저 사람의 생명도 붙들고 계시고 그 파트너의 생각도 아시고 도망가도록 길도 열어주셨는데 내가 손해 볼 거 없지요. 그렇게 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손해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돈을 떼어먹는 저 심성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에요.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지요.

여러분, 어려울 거 있지요. 어려울 거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수긍이 가고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비방 한마디 해도 발끈하게 돼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떻게 용서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용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용서의 중요성을 문학적인 감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맞아! 용서해야 돼"라고 백번 천 번 다짐해도 안 돼요.

내 돈 십만 원 떼먹는 사람 있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십만 원 줄 수도 있지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십만 원 떼어먹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괜히 삼천 원 바가지 쓴 거 같으면 만원 기분 좋으면 줄 수도 있는데 삼천 원 바가지 쓴 거 같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나요. 속은 거 같으면…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눈에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몸으로 이루어진 삶에 대해서 아예 죽는 수밖에 없어요.

"너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피해를 느낀다는 말이냐?" 십자가 붙잡고 나를 타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천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런데 너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 그 누가 손해를 끼치겠어? 넌 죽은 자야. 네가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게 말이 안돼. 넌 죽은 사람이야." 타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피해의식이 죽어야 돼요. 피해망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피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제거돼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 붙잡으라는 얘기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해나가실 때에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거는요 평생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면 다 멸절시켜도 돼요. 그 형님들의 아내와 그 형수님들과 그 조카들은 살려줘요. 불쌍하니까. 까짓 거… 그 형들은 아주 정말 혼찌검이 나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마는 하나님은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참 절묘한 반전이에요.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분명히 팔려갔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면 이건 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생을 사랑하고 끼어 안고 날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그랬다면 어떻게 파는 일이 생겼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

고 질투하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요셉에게 끼쳤지마는 하나님은 그 손해로 보이는 일을 이루지게 함을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며 그 근동지방 전체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아! 그 감동 자체에요. 감동 그 자체에요..

총리도 그냥 됐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 했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못돼 먹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모욕감을 느끼고선 요셉을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손해 손해 손해만 봤는데 결국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일만 찾아요. 애굽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 버리고 제쳐버리고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손해만 봤는데 총리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많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를 잘 이겨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용서하면 용서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빵빵하게 임한다 이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느끼는 피해의식을 다 죽여버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임하시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좀 찾아봐요. 여러분. 좀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이 없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 만나고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일만 추구할 게 아니라 무조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누군가 다 명단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꼽아서 용서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도 안 일어나고 용서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체념해버려요. 돈 떼이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기가 힘이 드니까.. 이게 용서가 아니지요.

용서는 주니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하려고 할 때에 십자가 붙잡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니까.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이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내 죄를 용서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잡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람 용서하려고 피해의식을 이기려고 피해망상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십자가 붙잡았다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이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주기도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이는 기도입니다. 죽이는 기도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원하던 행복의 길이 요 안에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죽이도록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속 나를 죽여가면서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면서도 어떤 건지 알지도 못했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기도처럼 복된 게 없지요.

여러분, 이래서 이제 사람의 용서 문제까지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그게 무슨 내용일까?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안에 있을 때 시장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서 생활해 나갈 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지 않을 마음가짐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떤 내용일지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한번 실지 해보는 겁니다.

물질 내게 있는 것들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용도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놓으세요. 안 돼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분 이외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누가 쓰든 사기꾼이 와서 갖고 가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봐요. 용서하지 않은 채로 묻어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혀 진 채로 지나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분명히 저 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이 저 분의 잘못이라면 용서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장 나가서 살 때에 나한테 무례하게 행한다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아무 것도 아닌 일에, 아니 왜 미스 리가 옆에 있는 김 과장 커피는 갖다 주면서 왜 내 커피는 안 갖다 주는 겁니까? 대리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어! 기분 나빠요. 이럴 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삶이 겹쳐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스 리 마음 움직이고 김 부장 마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